



1980년대 들어서 국내 건설업이 성장과는 달리 해외건설 수주액은 1981년과 1982년 최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중동건설 붐이 퇴조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외시장 개척에 실패한데 기인한 것이다. 이

후 중반에 들어서는 국내 건설시장도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 시기였다.

당시 해외건설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1983년 동안 동아건설이 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혁명의 중추적 프로젝트인 대수로 건설공사를 약 33억 달러에 수주하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던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이 심리적 지지선인 100억 달러 선을 지킬 수 있었던 시기였다.



■ 부실시공의 교훈과 급변하는 건설시장

불과 50여 년만에 국가경제를 주도할 만큼 급성장한 건설산업은 그 공을 인정받았으나, 때로는 위정자의 치적에 이용되었던 일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뼈아픈 교훈이 되는 부실시공의 문제를 맞게된다.

또한 1993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및 정부조달협상이 타결되면서 건설업도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게 되었다. 연이어 발생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의 대형사고는 1990년대 건설제도개혁 및 변화의 동기와 시발점이 되었다.

1997년 말 불어닥친 IMF 환란으로 건설물량은



이전 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부실해진 금융기관들이 채권 회수에 나섬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최악의 물량부족과 자금난으로 한국건설 반세기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1994년 UR 건설서비스 협상에서 1994년부터 외국 건설회사의 100% 국내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외국 건설회사의 지사설립은 1996년부터 허용하기로 하는 등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산업의 글로벌화가 요구되게 되었다.

1994년 10월 21일 건설산업계에 뼈아픈 교훈을 남긴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유지·보수관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건설시공에 대한 의지를 뼈아프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재차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법”의 개정이 1995년 12월 30일 공포되었다.

이러한 악재 가운데 한국건설의 기술력을 세계에 크게 알리게 된 사업은 말레이시아 KLCC 트윈타워빌딩의 스카이 브릿지 설치공사를 담당, 전 세계 최고 기록을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철탑공사에서 일본을 제압하기도 했다.

■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전

IMF의 긴 터널을 지나 건설산업은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라 지난해 건설수주액이 83조 1,5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6%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경기 회복은 부동산 경기의 의존도가 높아 완전한 회복까지는 절반의 성공으로 건설인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 상반기 특히 경제상황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해 3.0% 내외 감소한 80조 6,8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과열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5월께 세 번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SOC 투자확대와 함께 대형공공·민간건설사업에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 등을 제정해 건설투자를 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